

오늘 제45회 학위수여식

학사 3천3백95명, 석사 2백66명, 박사 78명

총장상 이귀엽(약학)양, 황일철(태권도)군

96학년도 제45회 학위수여식이 오늘 양 캠퍼스에서 단대별로 거행된다.

집단 유급으로 인해 졸업생이 4명뿐인 한의대를 포함한 정원 총 3천3백95명(서울 1천5백78명, 수원 1천8백17명)의 학사 및 2백66명의 석사, 78명의 박사를 배출하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총장상은 서울캠퍼스 이귀엽(약학)양, 수원캠퍼스 황일철(태권도)군이 차지했다.

단대별 수석졸업자에게 주어지는 학장상은 문리대 박인숙양, 외대 송찬규군 등 16명에게 수여되며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우등상은 정경대 양동명군과 사회대 장현수군을

포함한 총 79명에게 주어진다. (관련기사 4.5.6.7면)

조정원 총장은 오늘 치사를 통해 “학위취득의 영광을 축하합니다.”라고 격려한 뒤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이웃과 나라, 가족을 소중히 여길 것”과 “동문회 활동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년에 이어 단대별로 치루게 된 이번 학위수여식의 장소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문리대: 오전 11시, 도서관 시청각실△법대: 오후 2시, 복지회관 강당 △경경대: 오후 11시, 도서관 시청각실 △사대: 오전 11시, 복지회관 강당 △가정대: 오전 11시, 언어교육원

강당 △치대: 오전 11시, 치대강당 △약대: 오후 2시, 치대강당 △음대: 오전 11시, 음대 리사이트홀 △체대: 오후 2시, 체대 무용실△사외대: 오후 2시, 체대 시청각실 △사회대: 오전 11시, 사회대 시청각실 △자연대: 오후 2시, 공대 시청각실 △산업대: 오전 11시, 산업대 시청각실 △체과대: 오전 11시, 체과대 시청각실 (강남이 기자)

신입생 수강신청
서울 27일, 수원 28일까지
우리학교 수업과는 재·복학생 및 신입생에 해당하는 97학

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을 발표했다.

서울캠퍼스의 신청기간은 재학생의 경우 내일까지이며, 신입생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다.

복학생의 경우 예년처럼 신청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PC온라인 접속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수원캠퍼스의 경우 재학생은 오늘부터 26일까지, 복학생은 28일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하며, 신입생의 경우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캠퍼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는다.

오는 3일 입학식

새내기 환영잔치도 열려

97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새내기 환영잔치’가 오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다.

총 4천7백94명의 신입생을 맞이하는 이번 입학식은 양캠퍼스 신입생 전원이 모인 가운데 식전행사, 입학식, 학교소개, 초대가수 및 동아리 축하공연,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된다.

신입생 식전행사는 응원단 공연이 발표되고 동아리 축하공연 순서에서는 풍물패를 비롯한 교내 동아리들의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입학식과 같이 양 캠퍼스가 한자리에서 입학식을 하는 것은 9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의사고시 32명 합격

전국수석에 장현양

지난 2월 9일부터 이틀간 서울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국가의사고시에서 우리학교 의과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총 39명이 응시해 32명이 합격, 8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인 이번 시험에서 우리학교 장현하(의약)양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국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총 7개 과목을 치뤄야 하는 이번 시험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양은 지금 심정에 대해 “그저 기뻐 뿐이다.”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와 경락” 학술대회 개최

동의의학의 접목 선보여

간호의 한의학적 접근을 위한 이론과 실제 ‘기와 경락’ 학술대회가 우리학교 동서간호학연구소 주최로 지난 11일부터 2일간 경희의료원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김광주 동서간호학 연구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경락의 실제, 경락과 기의 응용 건강증진을 위한 기수련 등 동양의학을 서양간호학에 접목시켜 발표함으로써 의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대학주보 뉴스서비스

천리안: GO KHU 32

하이텍: GO KHU 10

인터넷:

http://news.kyunghee.ac.kr



▲지난 1월 13일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한 조정원 박사의 취임사 낭독 모습.

제10대 총장 조정원 박사 취임

“화합의 힘 도출위한 노력” 맹세

제10대 총장 조정원 박사 취임식이 지난 1월 13일 체육대학에서 거행됐다.

각 계 언론사, 중앙대 김민하 총장을 비롯한 각대학 총장 및 교육관계자, 기업사장단, 외교사절단, 정부·법조·군사 관계자, 동문회 및 경희가족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취임식은 개식선언과 국민 의례, 취임사, 내빈 축사, 노동조합과 학생회 등의 꽃다발 증

정, 설립자 조영식 학원장의 인사 순으로 치루졌으며, 식이 끝난 후 체대 농구장에서는 참석자들과 리셉션을 가졌다.

총장 취임사에서 조정원 총장은 “참가 내빈 모두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한 뒤 “공평무사한 인사, 공정한 업적평가, 최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리고 무엇보다 경희가족으로서의 우애와 사랑으로 화합된 힘의 도출을 위한 최선

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맹세했다.

또한 이영택 교육부 차관은 취임 축사에서 “국가경쟁력 시대에 맞추어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킬 것”을 당부했으며, 김원옥 국회의원회 의위원장, 김민하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정동성 총동문회장이 조정원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교시 탐

억지 학사모

▼대학은 본래 순수하게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다. 많은 학자들이 대학을 거쳐 갔으며, 그들의 학문탐구정신과 업적이 오늘날의 인류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취업 위주의 사회에서 그 학문적 순수성은 퇴색되어 가고 있다. 학살의 전당이라고 일컬어 지던 대학이 취업학원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대학은 사회현실과 상이한 정신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졸업을 하려면 졸업논문이나 졸업시험에 통과되어야 한다. 4년간의 수학을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졸업논문은 그 가치가 높다. 그러나 전공 학문을 각자의 관점으로 연구, 정리한다는 본 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작성과정이나 전공교수의 평가 모두 형식적으로 치루치고 있다.

우리 학교의 졸업논문 제출시기는 대체로 4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전까지이며, 졸업논문발표회를 통해 담당교수의 평가를 받게 된다. 점수가 매겨진 한 학점에 반영되지 않으며 평가기준이 까다롭지도 않아 제출한 학년 거의 통과가 되는

실정이다. 여기서 문제시 되는 것은 자료를 조합하는 짜집기를 하거나 남의 글을 베껴거나 모방하는 학생이 대다수인데다 담당교수 또한 알고도 넘어가주는 식이라는 것이다. 졸업논문이 이처럼 형식적으로 치루치는 원인은 졸업논문 제출시기에 대학원 진학시험 준비기간이나 취업시점과 겹쳐져 있는 데 있다. 취직이 급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어공부에 신경쓰느라 졸업논문을 준비할 여유가 부족한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이미 졸업논문 통과제도 폐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해서 우리 학교까지도 그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 졸업논문에 대한 학생이나 교수의 인식변화, 그리고 그것을 유도할 학교측의 노력이 필요하다.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 주마간산 식으로 행해지는 논문통과가 과연 순수하게 학문을 탐구해야 하는 대학에서 어떤 의미가 될지.

(홍유리 기자)

노트북 PC 전시 및 판매 실시

24개월 할부판매도 가능

우리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트북 PC 판매가 3월 14일까지 실시된다.

우리학교 전자계산소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된 이번 판매는 17일부터 행해졌으며 판매되는 노트북의 기본 사양은 펜티엄 133MHz, 메모리 16MB, 6배속 CD-ROM과 33,600bps 모뎀이 기본형이다.

판매가격은 2백2십9만9천원으로 3~24개월동안 할부도 가능하다.

또한 판매기간동안 노트북PC 및 OPTION에 관한 전시와 S/W 상담을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하며 전년도에 판매한 제품과 한해 제품수리도 실시한다.

구입을 신청한 제품은 오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시장에서 인도가 가능하다.

민속놀이 대잔치

교직원 친목의 자리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대잔치’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본관 앞에서 열렸다.

우리학교에 근무중인 교직원 전체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자 조정원 총장이 기획한 이번 행사는 총장의 개회사, 민속놀이, 점심식사 순으로 치루졌다.

민속놀이 순서에서는 제기차기, 줄넘기, 줄다리기, 윷놀이, 널뛰기 등 다양한 종목이 행해졌으며 성적에 따라 푸짐한 상품도 마련되었다.

이날 개회사에서 조정원 총장은 “서울, 수원 전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3월중 ‘동문찾기 캠페인’

동문록, 뉴스레터 제작 예정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는 오는 3월부터 ‘동문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동문참여의 확대를 위해 기획하게 된 이번 행사의 내용으로는 동문록 및 뉴스레터 제작이 준비중에 있다.

약 5개월간 60여명의 인원을 투입, 제작하게 되는 동문록은 학교발전에 있어 동문들의 체

제적 참여를 늘리고자 기획한 것으로 기존에 실시해 온 경희기금마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스레터(공식명 미정)를 발간함으로써 발전기금의 내역을 실어 투명성 확보에도 힘을 예정이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대학주보사 기자 일동-

경희의 이름으로 새시대를 ...

세계의 명문대학 뒤에는 동문들의 작은 정성이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이제 세계의 중심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정보화·미래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경희대학교 희망찬 경희인 모두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후원으로 마련되는 경희발전기금, 이렇게 쓰입니다.

◆대강당 원공

◆개교50주년기념관 건립기금 조성

경희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1999년 개교50주년기념사업 기금을 위한 범 경희인의 후원 운동을 전개합니다.

◆2세기 특별목적사업기금 조성

- 교육시설 확충(특수교육공간 전설 및 문화공간 확충)
- 학술연구/첨단과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우수교원 및 연구원 확충
- 종합 학술 정보 체계 수립/도서관 장서 구입
- 문화예술/창작/체육진흥기금
- 장학/각종 교시육성 후원기금

경희발전기금 안내

- 대상: 경희가족(동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독자가, 기업, 기관, 단체 등
- 기부형태: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기타자산(부동산, 기타), 도서자료, 실험실습기자재 등
- 일시 및 분할 납부: 일시 또는 월납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단체별(예: 직장/지역동문회 등)
- 각 학과/대학원(원)별 특정목적기부금으로 지정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예금주: 경희대학교)

국민은행 010-01-0618-642
서울은행 17301-2710-209
농협 031-01-398711
우체국 012336-0025556한일은행 070-084146-13-101
외환은행 131-13-10336-6
평화은행 044-01-001-286
경희사랑자이금통기금(서울은행) 17308-9505323

■발전기금 납부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약정서에 기재하신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
- 현금을 출연하시고자 할 때에는 희망하시는 금액을 일시에 출연하거나, 출연금액을 약정하여 원하시는 횟수대로 분할하여 출연하실 수도 있습니다.
- 분할인 경우 1회분 불입시 도장을 가지고 해당은행에 가서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우편환 또는 전산환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직접 찾아 뵙겠습니다.
- 급여공제(교직원에 한함) 가능
-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자산 출연은 개교50주년사업회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 유산상속이나 기타 소유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원납하실 수 있으며 모든 법적수속과 관련비용은 학교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